마포구시설관리공단 '창의제안 경진대회' 실시

2016-12-26 오후 3:10:35

마포타임즈 mapodesk@hanmail.net

(제공=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하 공단)은 지난 21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마포구청 관계자 및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창의혁신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창의혁신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직원 제안으로 개선된 사례들을 발표하고 우수 제안을 시상하는 자리였다.

최우수상은 공공시설안전2팀 우석현 씨가 발표한 "에너지 절감사례"가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에는 시장사업팀 박찬복 씨가 발표한 "위기를 기회로"가, 장려상에는 주차사업팀 이상민 씨가 발표한 "부정주자NO, 방문주차 YES"가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마포아트센터 온수 저장탱크 열 교환기 개선 사례(공공시설안전1팀 오남일), 전직원 견문보고제 시행(안전감사팀 이상은), 두 마리 토끼를 잡다(문화복지사업팀 김세진), 최우수 공기업 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경영기획팀 조대현) 등 총 7개 팀에서 7가지 제안이 경쟁을 벌였다.

김영식 이사장은 "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공단을 이끄는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경영에 도입하여 지속적인 혁신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0공유

<저작권자©마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12-26 15:10 송고